

“제주 항공좌석난 해법은 슬롯 확대”

위성곤 지사 “국토부·항공사 접촉… 운항편 확대 노력”
LCC 소형기·관제탑 공사 변수… 이동권 확보 과제
도, 피크타임 외 추가 운항·항공유 면세 등 개선 건의

제주지역 국내선 항공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항공사에 슬롯 확대와 항공기 증편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을)의 항공기 좌석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과 공급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4월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은 1만2262편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80편 줄었고, 공급석은 16만 5689석(6.8%) 줄었다. 5월에도 항공편은 190편, 공급석은 3.3% 감소했다. 6월과 7월 공급석 역시 각각 9.1%, 4.5% 감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항공좌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을 상대로 공급 확대 방안 협의에 나서고 있다.

위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대책회의를 통해 건의했고, 지난 8월 28일에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슬롯 확대를 요청했다”면서도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지사는 제주 항공편과 관련해 “현재 동계 스케줄을 편성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항공사들을 접촉해 관련 편수가 줄지 않고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지사는 제주공항의 슬롯 문제가 항공좌석난 해결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항공 좌석난뿐만 아니라 슬롯의 문제”라며 “슬롯 확대를 위해 제주도가 여러 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했지만,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슬롯 확대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제주공항 관제탑 공사 지연도 변수로 거론됐다. 위 지사는 “관제탑 공사가 올해 준공 예정인데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결국은 국토부에 완화된 슬롯 정책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슬롯 배분과 저비용항공사(LCC)의 기재 운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양 의원은 “합병에 따라 반납한 12개 슬롯을 LCC에 배분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LCC는 대부분 소형 항공기를 운용해 편수가 같아도 좌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항공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대형 항공

기 투입이 반드시 좌석 공급 확대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양 의원의 의견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위 지사는 “대형 항공기는 정비·수리 시간이 오래 걸려 전체적으로 운항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항공좌석난 해소를 위해 피크타임 외 시간대에도 항공기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항공유 면세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의 지역사회 기여 문제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제주항공이 기업 이윤만 추구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위 지사는 “제주도민의 이동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2026 JDC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한리일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올해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총 2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 ▶ 일시 : 9월 12일(토) 오전 10시~낮 12시
- ▶ 장소 : 한리일보 3층 회의실(제주시 서소로 154)
- ▶ 모집대상 : 20명 내외 (초등학교 1-3학년, 선택순 마감), 참가비 무료
- ▶ 신청기간 : 9월 11일(금)까지
- ▶ 접수방법 : 링크 (<https://forms.gle/FYRaBFyTwMfsvTLA>) 또는 QR코드 *선착순 접수인만큼 접수 후 꼭 확인 전화 또는 문자
- ▶ 교육내용 : 그림책과 NIE 다르다고 이상한 걸까?_ 같은 그림, 다른 제목
- ▶ 문의 : 010-4369-3011

공동기획 : 한리일보 · JDC

제주관광시장 글로벌 다변화 본격화

제주도, 세계적 환승 거점 공항 연계 상품 출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위한 팜투어도 병행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제주 관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직항노선의 한계를 넘기 위해 세계적 환승 거점 공항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승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시아 최대 거점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 터미널에 “당신의 다음 목적지는 제주(Your Next Stop: JEJU)”라는 문구가 적힌 제주관광 홍보물을 게시한다.

연간 10편 안팎의 전세기 운임이 되는 필리핀에서는 현지 대형 여행사 락소 트래블(Rakso Travel)과 손잡고 캐세이퍼시픽(홍콩 환승)과 중국동방항공(상하이 환승)을 이용하는 제주 상품을 출시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팜투어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 여행 연결망인 ‘비추오스(Virtuosos)’ 관계자와 고급 전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답사 여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주해녀문화 등 유네스코 유산과 차 체험, 꽃자왈 숲 해설 등 건강 관리(웰니스)와 지역 체험 자원을 소개한다.

황경선 제주자치도 관광교통국장은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해 체류 기간 연장과 지역 상권 소비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연결망을 적극 활용해 도내 소상공인과 관광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6. 9월

10월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곶들락한 책마실 야외도서관

매주 다른 곳에서 만나요!

탐라도서관 야외정원
매주 금요일, 토요일
16:00~21:00

애월 고내포구
9월 둘째 주(9/11~12)
16:00~20:00

애월 고내리 레포츠공원
10월 둘째 주(10/9~10) 11:00~17:00
*애월도서관 북페스티벌(10/9~10)과 함께 진행합니다!

한경면 싱계물공원
매달 셋째 주(9/18~19, 10/16~17)
14:00~18:00

북토크



● 정보라 작가
- 10. 18. (일) 18:00~20:00
탐라도서관 야외정원
© 사진 : 해영



● 소복이 작가
- 9. 18. (금) 16:00~18:00
한경면 싱계물공원



● 김원태 작가
- 10. 16. (금) 17:00~18:00
한경면 싱계물공원

큐레이션 특별 테마서가

체험 책놀이 체험

버스킹 버스킹 공연

영화 야외 영화관

(*탐라도서관 야외정원에서만 운영)

The 46th National Para Games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6.09.11. ~ 09.16.

Jeju 제주시